



# 정교회주보

제2568호

2026년 3월 15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키프로스의 살라미스 고대 도시 유적. 바르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한 첫 발자취가 남아 있는 곳이다.

(사순절 제3주일)  
십자가 경배 주일  
성 아가피오스 순교자  
(제7조 • 조과 복음 7)

\* 조과-찬양되시는 주여 부르지 않음.  
\* 대영광송 다음 '십자가 경배 의식' - 231

##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 제7조 부활 찬양송 ..... 82
- 십자가 경배 찬양송 ..... 230
- 성당 찬양송
- 사순절 시기송 ..... 223
- '삼성송' 대신에 '주여, 주의 십자가' 230
- 사도경 : 히브리 4,14~5,6 ..... 230
- 복음경 : 마르코 8,34~9,1 ..... 139
- 성모송 '은총이 가득하신 이여' .... 62
- '우리가 참 빛' 대신 '십자가 찬양송' 230

## [11회] 제1차 선교 여행의 시작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바르나바와 사울은 안티오키아 교회의 기도와 안수 속에 파송되어, 지중해로 향하는 관문인 셀류기아 항구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복음이 아직 닿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 열린 출발점이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키프로스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다. (사도행전 13,4 참조) 이로써 성령의 인도와 교회의 든든한 지지 속에 역사적인 제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다.

배의 돛이 바닷바람에 팽팽히 부풀어 오를 때, 사도들의 가슴은 그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 찼을 것이다. 등 뒤에는 자신들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한 안티오키아 공동체가 있었고, 눈앞에는 복음을 기다리는 이방인의 땅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었다. 평온하게 머물 수 있었던 익숙한 공동체를 떠나 거친 바다로 나아가는 이들의 항해는, 오늘 우리에게도 안주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성령께서 보내시는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요청한다.

키프로스의 동쪽 항구인 살라미스에 도착한 그들은 곧장 유대인의 여러 회당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사도행전 13,5 참조) 이 여정에는 '요한 마르코'도 조력자로 동행하였다. 그들이 가장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았다는 사실은, 복음이 구약의 약속을 완성하는 성취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동쪽을 향한 바울로 사도의 뜨거운 애정을 잘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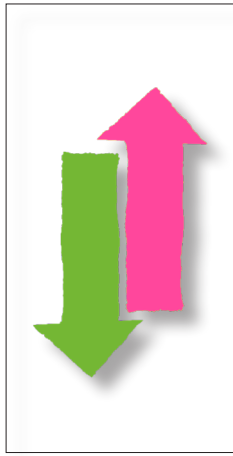
# 약함에서 강함을

한의학 알렉산드로스 신부

진실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알 수 있을 때는 자신이 약함을 인정할 때입니다. 자신이 교만과 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 약함을 비웃고 경멸하며 강한 자로 자처하면, 자신의 진실한 내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로도 바리사이파 사람으로 명문 집안에서 학식을 갖추고 부족함이 없이 자라다 보니 약한 자를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로 여기며 박해했습니다. 강한 자만이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자신 역시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강한 자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갖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였지만, 때때로 그의 교만은 그를 유혹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다시 깨닫고 겸손히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알 수 없는 병을 주셨습니다. 그는 육신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게 되었고, 겸손에서 오는 영적인 강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굉장한 계시를 받았다 하여 잔뜩 교만할까 봐 하느님께서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나를 줄곧 괴롭혀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2고린토 12,7)

인간이 오만함으로 하느님을 무시하고 강하게 살아가는 결과는 성서의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대홍수 등 인류는 크고 작은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역사의 교훈을 잊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겸손하지 못한 채 교만하게 주님께 대적하며,



천지창조의 아름다움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환경파괴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욕심과 교만은 전쟁과 폭력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과 고통과 절망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교만과 욕심에 사로잡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창조주께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앞장세워 강한 자로 행세하며 교만하게 약한 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2고린토 12,9) 인간은 하느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게 될 때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수록 자신의 죄를 더 깊이 알게 되어 겸손의 덕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겸손의 덕에 이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 영적 강함을 얻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는 힘을 얻게 되어 주님의 길을 걷게 되고 하늘나라에 이르는 영광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마르코 8,34)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자신이 완전하지 않은 약자임을 인정해야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구복단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갇힌 비난을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 하여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옛 예언자들도 너희에 앞서 같은 박해를 받았다.”

# 우리가 용서받기를 원하는 한 모든 것은 용서됩니다

파블로스 파파도풀로스 수도사제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역임



**인**간의 영혼은 평화롭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종종 죄와 잘못된 선택, 불결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무거운 짐에 짓눌려 고통을 겪습니다.

이 짐은 외적으로 언제나 잘 보이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흔히 우리 안에 숨어 있고, 상처를 드러내며, 우리 영혼의 내면을 어둠으로 채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 위안을 찾으려 하지만, 이러한 내면의 세계가 정화(淨化)되지 않는다면, 참된 평안과 쉼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화는 고백성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고백성사는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며, 단순한 심리적인 위로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온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화(聖化)되기 위해 고백성사에 임합니다. 고백성사는 성스러운 사건이며, 위대한 신비입니다. 그 자리에서 신자는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하느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 보입니다.

그 순간에 신자는 자신을 낮추고 잘못과 나약함을 고백하며, 스스로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자기 영혼의 문을 활짝 엽니다.

이 신비는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목욕과 같습

니다. 곧 영혼의 더러움을 씻어 없애버리고, 인간을 새롭게 하여 다시 태어나게 하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를 선물합니다.

그러므로 고백성사는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구속(救贖)의 은총입니다. 그것은 치유이고 용서입니다. 또한 우리를 슬픔에서 안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자기 정욕의 노예 상태에서 하느님의 은총이 주는 자유로 이끌어 주는 사다리입니다.

겸손이 없다면 신자는 자신이 잘못했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백성사에 임하게 하는 겸손은 연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주 큰 용기의 행위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진실을 받아들이며,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용서받기를 원하는 한 모든 것은 용서됩니다. 우리가 하느님 없는 악마적 자울에 머무르지 않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허락하는 길을 택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 속에서 우리는 이 목표로 인도할 영적 아버지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또한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 사순절 예배 안내

- \* 화, 목 오후 5시  
석후대과
- \* 수요일(3/18) 오후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 금요일(3/20) 오후 6시  
제 4 성모 기립 찬양  
(각 성당 예배는 문의바랍니다.)

-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수요일 오후 5시  
금요일 오전 9시

### ■ 오늘은 십자가 경배 주일입니다

사순절 여정의 한가운데에 있는 이 주일은, 금식과 예배와 기도로 영적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를 통해 힘을 주는 날입니다. 이를 통해 남은 사순 기간을 잘 이어가며 주님의 수난에 동참하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부활의 기쁨에도 함께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십자가의 축복으로 사순절을 잘 보내고 성대주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 알림

### ■ 세례 예비자들 축복식

지난 정교 주일(1일)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는 성화행렬 후, 라자로의 토요일(4/4)에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이들이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앞에 나아가 소개되고 대주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제 ‘예비신자’의 단계를 지나, ‘거룩한 빛을 받을 준비를 하는 이들’의 무리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 ■ 서울 성당 유아 세례성사

지난 7일(토), 성 막심 성당에서 로만 대신부의 집전으로 신례온 유아가 세례를 받고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리며, 주님의 은총으로 건강하고 거룩하게 자라길 기원합니다.

### ■ 비잔틴 성화 세미나 안내

우리 대교구에서는 그리스 성화작가인 소조스 야누디스 교수를 초빙하여 따띠안나 서미경 성화작가와 함께 비잔틴 성화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전공자, 일반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초급 및 고급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장소: 한국 정교회 대교구

-기간: 6월 1일-30일 /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수강료: 2,000,000원

-수강 등록: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요청사항 등을 기재하여 대교구 메일(orthodoxkorea@gmail.com)로 3/20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강료 입금 계좌: 우리은행 1005-500-073554 (재단법인 한국정교회유지재단)

자세한 사항은 대교구 사무실(02-362-6371 또는 010-3088-8878 또는 상기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영성의 샘터



## 쾌락에 병들면

어떤 사부가 한 청년 수도자에게 말했다.

“자네가 기도할 때나 하느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영혼의 영적 고양을 느껴보지 못했다면 자네는 허영이나 쾌락에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네. 이 두 짐승은 사람에게서 영적 분별을 쫓아낸다네.”